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— 2026-11-06 (금요일)

[오늘의 한 줄]

미국 민주당 압승의 후폭풍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. 목요일 뉴욕에서는 나스닥이 -5.52%(조정장 진입), 반도체 지수가 -12.25% 폭락하며 2025년 4월 관세 쇼크 이후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고, 금요일 한국에서는 개장 3분 만에 서킷브레이커(일시 매매 중단)가 발동되는 가운데 코스피가 -6.02% 밀려 5,0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. 이틀 합계 낙폭은 -10.98%입니다.

[확인된 데이터]

■ 한국 시장 (11/6 정규장 마감, 오후 3시 30분)

- 코스피 5,059.69 (-324.11, -6.02%). 종가 기준 3월 31일(5,052.46)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저. 6월 22일 연중 고점(9,114.55) 대비 -44.5%, 9월 23일 하반기 고점(7,080.92) 대비 -28.5%입니다. 어제 기록의 '최근 고점 대비 -24.0%'는 이 9월 23일 고점 기준이었습니다. [계산]
- 개장 직후 장중 4,911.28(-8.78%)까지 밀리며 5,000선이 무너졌습니다(장중 기준 2월 6일 이후 9개월 만). 오전 9시 3분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매매가 중단됐고, 9시 34분에는 매도 사이드카(프로그램 매도 일시 정지)가 걸렸습니다. 코스피200 변동성지수는 65.17(+11.96%).
- 코스닥 644.27 (-34.14, -5.03%). 오전 9시 6분 매도 사이드카. 이틀 연속 양 시장 사이드카입니다.
- 삼성전자 188,700원 (-6.35%, '20만 전자' 반납). SK하이닉스 113만2천원 (-10.44%, 장중 최대 -13.84%). 삼성전기 87만원 (-7.84%).
- 전력기기 3종: 효성중공업 157만7천원 (-11.95%), LS일렉트릭 116,500원 (-10.25%), HD현대일렉트릭 366,500원 (-8.72%).
- 하락 760개 대 상승 131개 종목. 거래대금 유가증권 27조7천억원, 코스닥 4조8천억원.
- 당국 대응: 관계 당국이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(140%)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
출처: 연합뉴스 종합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06130151008

■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(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)

- 코스피: 외국인 -2조7,691억원(6거래일 연속 순매도), 기관 +1조7,042억원(금융투자 +1조6,208억, 연기금등 +2,885억), 개인 +6,010억원, 기타법인 +4,641억원(SK하이닉스 자사주 추가 매입 영향).
- 코스닥: 외국인 -1,014억원, 개인 -1,106억원, 기관 +2,058억원.
- 종목별로 외국인은 SK하이닉스 1조9,205억원, 삼성전자 1,298억원을 팔아 순매도 1·2위였습니다. 다만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오후 3시 19분 현재 6,870억원 매수 우위였습니다.

- 누적(9/23부터 29거래일,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, 근사치): 외국인 순매도 누적 코스피 약 39.0조원, 코스닥 약 1.36조원. [계산]
- ※ 수급 수치는 집계 시점에 따라 기사마다 다릅니다(위 표는 15:35 기준).
출처: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106130400008

■ 미국 시장 (11/5 목요일 마감)

- 나스닥 24,315.00 (-5.52%): 고점 대비 -10% 이상 하락을 뜻하는 '조정장'에 진입했고, 하루 낙폭으로는 2025년 4월 4일(-5.82%) 이후 최악입니다. S&P500 7,353.73 (-4.36%), 다우 51,523.06 (-3.44%, -1,833포인트), 러셀2000도 조정장. 반도체지수(SOX) -12.25% 9,011.14.
- '매그니피센트 7' 시가총액이 하루에 1조 달러 증발했고 엔비디아만 -4,400억 달러(-9.26%, 연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전환). AMD -17.3%, 브로드컴 -10.4%.
- 메모리 붕괴: 샌디스크 -22.26%(806달러, 4월 수준), 마이크론 -17.46%(656달러, 5월 수준). 이틀 새 메모리 대표주들이 20~30%씩 빠졌습니다.
- 공포지수(VIX) +11.57포인트(3월 말 이후 최고), 기술주 ETF(XLK) -8.04%(2020년 3월 이후 최악). 뉴욕증시 하락 대 상승 종목 비율 약 6대 1.
- 하락 동력: (1) 중간선거 민주당 압승과 10개 주 주민투표의 데이터센터 금지·모라토리엄 승인(IFR), 텍사스 모라토리엄 유지 전망. (2) 마이크로소프트의 네오클라우드(외부 AI 데이터센터 임대업체) 프로젝트 재검토 보도. (3) 댄 아이브스(요크빌): "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향후 2년간 미국 내 데이터센터 800~1,000개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".
- SK하이닉스 관련 보도: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다롄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허가를 두고 SK하이닉스와 마찰 중이며, 뉴욕주 공장 계획도 늦어질 수 있다는 보도(FX스트리트). 단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.
출처: CNBC https://www.cnbc.com/2026/11/05/stock-market-selloff-ai-fears.html, FX스트리트 https://www.fxstreet.com/news/the-memory-trade-collapses-as-sandisk-sheds-17-micron-sinks-to-may-levels-202611051550, IFR https://www.ifre.com/bonds/2509040/hyperscalers-raise-us50bn-ahead-of-dramatic-ai-meltdown

■ 돈줄의 향방: 위는 열리고 아래는 닫힌다

- 대형 기술기업(하이퍼스케일러)은 이번 주 시장에서 50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(IFR). 알파벳 60억 유로(기존 대비 +0.20%p 양보), 오라클 200억 달러(절반은 주식 발행, 1년 전 주가의 절반 이하 가격, 채권 금리는 2월의 두 배 이상), 메타 150억 달러 + 90억 유로, 애플 75억 달러. 투자자에게 양보한 금리 폭이 0.5~0.6%p로 커, '우량 기업이 시장의 돈을 쓸어가 하위 AI 기업을 밀어낸다'는 우려가 나옵니다.
- 반면 아래쪽은 닫혔습니다: 네덜란드 ING은행이 데이터센터 대출 5억 달러어치를 매물로 내놨다는 보도(11/6 CNBC), 코어위브·네비우스는 채권시장에서 사실상 퇴출(Tilt 11/6), 하이일드(고위험) 채권시장은

네오클라우드에 닫힌 상태(WSJ 11/3)가 이어집니다.
- OpenAI는 상장을 2027년으로 미루고 사모 조달 목표도 300억 달러(기업가치 1.4조 달러)에서 200억 달러(1.25조 달러)로 낮췄습니다(IFR).
- 다음 시험대: 앤트로픽의 기업공개가 다음 주 청약(북빌딩)을 시작해 이르면 11월 16일 주에 나스닥에 상장합니다. 최대 1,000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대 IPO가 될 수 있어, 성패가 AI 투자 심리의 분수령으로 꼽힙니다(IFR).
출처: IFR https://www.ifre.com/bonds/2509040/hyperscalers-raise-us50bn-ahead-of-dramatic-ai-meltdown, CNBC(ING) https://www.cnbc.com/2026/11/06/ing-ai-data-center-loans-debt.html

■ 채권·환율·원자재

- 미 국채(11/5 확정): 3개월물 4.17%, 2년물 4.46%, 10년물 4.84%(-0.06%p), 30년물 5.25%. 2년-10년 금리차 +0.38%p. [계산] 주식 폭락에 안전자산 쏠림으로 금리는 내렸습니다.
- 한국 국고채 3년 3.622% (-0.049%p, 오후 4시 17분). 일본 국채 30년 3.840% (-0.025%p, 진행 중 값).
- 원화: 서울 외환시장 마감 1,356.6원 (+14.5원).
- 원유: 수요일 -8% 급락 뒤 이틀째 반등. 브렌트 1월물 배럴당 99.31달러 (+1.1%, 런던 오전 7시 55분), WTI 12월물 91.24달러. 그래도 주간으로는 약 -15%로 2020년 4월 이후 최악의 한 주입니다.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공격이 재개됐고, 이란은 해상봉쇄 해제·제재 완화·동결자산 반환을 요구하며 협상 중(카타르 중재). 트럼프는 목요일 안보팀 회의에서 재공격·경제압박 지속·양보 포함 협상의 3가지 선택지를 논의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.
- 금 온스당 4,072달러 (오늘 -1.0%, 진행 중). 주간으로는 8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할 흐름(블룸버그).
- 미국 항공유·경유(EIA 현물): 최신 확정값은 11/3 - 항공유 갤런당 4.198달러, 경유 4.823달러. 11/4 이후 값은 아직 미게시.
출처: 머니웹(블룸버그) https://www.moneyweb.co.za/news/markets/oil-extends-rebound-on-uncertainty-over-iran-war-peace-progress/, 미 재무부 일일 금리표, 네이버증권, 인베스팅닷컴

■ AI 가격 신호 3종 (11/5 미국 마감 기준)

왜 보는가: AI 투자 붐의 균열은 지수 전체보다 '빌려 쓰는 쪽'과 '반도체'에서 먼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, 세 가지를 매일 같은 방식으로 잽니다.
1. 반도체 대 지수 괴리: 최근 20거래일 반도체지수(SOX) -28.62%, 나스닥 -10.58%. 괴리 -18.03%p로 전날(-14.87%p)보다 또 벌어졌습니다. 반도체가 지수보다 거의 3배 빠르게 무너지는 중입니다. [계산]
2. 빅4 대 취약 사업자: 6개월 최고가 대비 빅4(MS·아마존·메타·구글) 평균 -15.99% (MS -3.6%, 아마존 -8.4%, 메타 -22.2%, 구글 -29.8%), 취약 3사(오라클·코어위브·블루아울) 평균 -47.94% (오라클 -53.6%, 코어위브 -68.4%, 블루아울 -21.9%). [계산]

3. 나스닥 고점 대비 -11.90% (전날 -6.75%, 조정장 진입). [계산]

[판단]

- 기조: '위험 회피' 유지. 이번 주는 정치 이벤트(민주당 압승·주 단위 규제)가 규제 우려를 거쳐 자금조달 경색 확인으로 이어지는 3단 연결 고리가 가격에 반영된 주였습니다. 새로 확인된 사실은 균열이 '주가'에서 '신용'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- ING의 데이터센터 대출 매각, 하이퍼스케일러조차 0.5~0.6%p를 얹어줘야 돈이 들어오는 상황, OpenAI의 조달 목표 하향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. 한국은 이틀간 -10.98%로 미국보다 더 크게 반응했고, 당국이 신용융자 완화에 나선 것은 낙폭만큼 반대 급부(반등 실패 시 신용 물량)를 우려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
- 판단이 바뀌는 조건: (1) 앤트로픽 IPO의 성공적 완료(11/16 주)와 하이일드 시장 재개방 확인, (2) SOX-나스닥 20일 괴리의 -5%p 이내 축소와 외국인 순매수 재개, (3) 연방·주 규제의 실제 입법 범위 확인(현재는 공약·전망 단계이며, 대신증권은 연방 차원 건설 중단 가능성을 5% 미만으로 추정).
- 오늘의 새 판단 기록: "코스피 종가가 5,059.69 아래일 것" - T+1(11/9, 월)과 T+5(11/13, 금)에 각각 검증합니다.

[복기]

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.
- 11/5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383.80 아래일 것" (T+1, 11/6 검증) → 실제 종가 5,059.69. 적중.
- 10/30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730.74 아래일 것" (T+5, 11/6 검증) → 실제 종가 5,059.69. 적중.
- 해석: 하락 방향 예상은 이어졌지만, 서킷브레이커가 나올 정도의 속도까지 예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. 검증이 끝난 최근 21건 중 적중은 11건입니다. 적중이 판단의 질 전체를 증명하지 않으며, 같은 흐름 안의 연속 결과는 독립적인 검증이 아니라는 한계를 함께 둡니다.

[AI 위험 v1]

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.

AI 위험 오각형 신호등

2026-11-06 (금) 기준 · 충족 2 · 미충족 2 · 미확인 1
E 확대: GEV -34%로 4종 전부 기준 하회



미확인은 점수를 매기지 않고 판정을 보류한 항목입니다
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

- A.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·철회 (최근 30일 2건 이상): 충족 (유지·확대) - 기존 사례(IPO 철회 5건, 앤트로픽 관련 텍사스 채권 매각 보류, MS의 Nscale 텍사스 확장 거절, 하이일드 시장 폐쇄)에 더해 이번 주 ING의 데이터센터 대출 5억 달러 매각 추진(11/6), 코어위브·네비우스의 채권시장 퇴출(11/6), OpenAI의 조달 목표 축소(300억→200억 달러)가 확인됐습니다. 반대 증거로 하이퍼스케일러의 500억 달러 조달 성공이 있으나, 그 비용(금리 양보 0.5~0.6%p)이 오히려 경색의 크기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함께 나옵니다.
- B.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(force majeure) 통보 또는 지급 유예: 미충족 - 신규 사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
- C. 사모대출 운용 3사(APO·KKR·BX)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20% 이하: 미충족 - APO -18.3%, KKR -14.7%, BX -19.8% (11/5 종가). BX가 기준에 근접했습니다. [계산]
- D. 엔비디아 또는 삼성·SK의 HBM(고대역폭 메모리,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) 실적 전망 하향: 미확인 - 하향 공시가 없습니다. 다만 SK하이닉스의 다롄 공장 장비 수출 허가 문제 보도와 '메모리 매진' 내러티브에 대한 규제발 의심이 겹치는 구간이라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E. 전력 인프라 4종(GEV·HD현대일렉트릭·효성중공업·LS일렉트릭)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30% 이하: 충족 (확대) - GE버노바 -34.4%로 기준 아래에 새로 진입해 4종 전부가 기준 아래입니다 (HD현대일렉트릭 -74.2%, 효성중공업 -65.7%, LS일렉트릭 -63.4%, 한국 3종 11/6 마감, GEV 11/5 마감 기준). [계산]
- 종합: 충족 조건은 A와 E 2개('3단계' 해당). 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(가능 범위 3~4단계).
-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,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.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
(끝)